



4면

'김정욱 교수 영산홀' 명명식

전주매일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음 9월 14일) 제360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제5차 전북 에너지계획 확정

전북자치도 에너지위원회

도, '모두 같이, 탄소중립 가치, 전북 RE100' 비전
에너지 공급 전환·에너지 혁신 등 5대 전략 추진
도민 에너지기회단 통해 직접 제안된 정책 반영

전북의 미래 에너지를 이끌어갈 청사진이 확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에너지위원회에는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석해 제5차 지역 에너지 계획을 심의하고, 에너지 백서 발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역 에너지 계획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전략이 담겼다.

제5차 지역 에너지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와 함께 도민 참여형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계획에는 5대 전략과 35개의 세부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비전은 '모두 같이, 탄소중립 가치, 전북 RE100'으로, △수요관리 효율개선 △에너지 공급 전환 △에너지 복지 교육 △에너지 혁신산업 △공공기관 이행 기반 등 5대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의 큰 특징은 도민 참여다. 8월에 두 차례 도민 워크숍이 개최되어 도민 에너지기회단 40명이 참석, 에너지전환 방향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했다.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에너지 백서 발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에너지 백서는 전북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발간된다. 올해는 2018년 이후 네 번째 발간으로, 전북의 에너지 정보가 한눈에 정리될 예정이다. 제5차 지역 에너지계획과 에너지 백서는 연내 발간돼 전북의 14개 시군과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제5차 지역 에너지 계획은 전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도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비전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백서를 통해 도민들이 전북의 에너지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고품질 에너지 안전 인프라 속속 구축

완주군·전기안전공사와 '대용량·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 위험성 평가, 안전기술 개발' 협약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력의 안정성은 높이고 위험성을 낮추는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전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는 등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산업의 테스트베드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용량, 고출력 UPS의 표준모델 개발과 함께 위험성 평가시스템 및 사고대응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중점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자치도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산업부 정책과제로 이 사업을 기획, 2024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시켰었다. 올해 1월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으며,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 일반산업단지에 센터를 구축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3개 세부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사

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배터리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UPS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구축될 무정전 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센터를 통해 국내의 기업들이 기술력과 안전성 검증을 받는 중요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완주테크노밸리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안전성 평가센터 성공적으로 개소하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에 있어 핵심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향후 이차전지 기반 에너지 저장 및 공급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신·재생에너지 기술력과 안전성 평가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의 연계한 유틸리티 제조사 유치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기존 ESS 안전성평가센터와 더불어 무정전전원장치 안전기준 개발 및 인증 수행을 통해 완주군은 세계일류 수소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 산업 안전·인증과 함께 이차전지 안전산업을 선도해 완주의 미래 100년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에너지 안전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인프라가 추가로 구축된다"며, "지난 4월 개소한 ESS 안전성 평가센터에 이어 무정전전원장치 위험성 평가센터 구축까지 더해지면, 가장 안전한 에너지 강국의 미래를 전북이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완주=염재복 기자

건축문화상 50개 작품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수상작으로 공공 및 일반, 학생 부문에서 총 50개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공공 분야에서는 (주)디자인그룹 오즈의 최한솔 건축사가 설계한 '부안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일반 분야에서는 (주)건축사사무소 유니티유에이의 김영주 건축사가 설계한 '금마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대상작으로 뽑혔다. 학생 부문 대상은 전북대학교 김도희, 최도현, 장에스터 학생이 공동으로 출품한 '스리슬쩍 프로젝트: 호통불'이 선정됐다. /이만호 기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환영의 불' 밝힌다

전북자치도·전주시·전북관광협회, 19일까지 공동 캠페인 전개
전주시 주요 상점들·도심 내 기관들도 참여해 야간 조명사용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협회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전주 시내 전역에서 '환영의 불 밝히기'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한인 동포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회 기간 동안(21일~23일) 전주 한옥마을과 전북대학교를 연결하는 팔달로와 기린로를 중심으로, 매일 저녁 주요 상가와 건물들이 환한 불빛을 밝히며, 전주 도심에 빛날 예정이다. 또한, 전주시 주요 상점들과 도심

의 다양한 기관들도 참여해 야간 조명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은행, 전북대학교 등의 후원으로 전주역, 한옥마을, 전주천 등 주요 관광지과 도심 곳곳이 조명장식될 예정이다. 이경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캠페인의 성공을 결정짓는 열쇠"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불 밝히기 운동이 전주를 방문하는 한인 동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간의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주가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모여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함께 주최한다. /이만호 기자